

일제강점기 일본인의 낙랑군 인식과 평양부립박물관 설립

국 성 하 *

목 차

- I. 문제제기
- II. 일본인들의 낙랑군에 대한 인식
- III. 낙랑군에 대한 인식의 확대 : 고적조사 보존사업
- IV. 낙랑군 인식의 고착화 : 평양부립박물관 설립
- V. 결론 : 낙랑군 인식과 평양부립박물관 설립

< 요약 >

일제는 고조선의 멸망과 동시에 중국의 한나라가 한반도에 낙랑을 중심으로 한 한사군을 설치하였다고 인식한다. 평양 인근에 있었던 낙랑군은 이 인식의 기초였으며, 낙랑군의 유적의 조사를 통해 확대되었고, 평양부립박물관의 설립을 통해 고착화되었다.

첫째, 조선총독부는 낙랑군을 확실한 실체로 인식하고 있었다. 낙랑군 곧 중국인들의 조선인 지배를 통해 조선인들은 문화적으로 성숙할 수 있었으며, 이후 조선의 문화적 기저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았다.

둘째, 낙랑군 인식은 인식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실증적인 증명절차를 거치는데, 이것이 바로 고적조사 보존사업이다. 고적조사보존사업은 「고적조사위원회」, 「조선고적연구회」등이 주도해 갔고, 총독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이 때 발견된 유물들의 해석을 통해 낙랑군의 인식은 더욱 확대된다.

셋째, 낙랑군과 관련된 유물의 수집과 그 보존에 대한 평양부립박물관 설립으로 이어진다. 실증적인 자료들이 박물관 안에 전시된 것이다. 전시를 곧 그 유물이 간직하고 있는 역사가 사실임을 입증하는 것이었고, 이는 그 역사를 고착시키는 역할을 한다. 일제의 낙랑군 역사 인식을 증명하는 곳이 바로 평양부립박물관이었다.

[주제어] 낙랑군, 평양부립박물관, 고적조사보존사업, 고적보존회, 일제강점기

* 독립기념관 학예연구사

(접수일 : 2004. 4. 20, 심사일 : 2004. 5. 10, 심사완료일 : 2004. 5. 25)

I. 문제제기

중국 한(漢)나라는 기원전 108년에 고조선을 멸망시킨다. 그 후 한나라는 한반도에 한사군을 설치하는데, 한사군의 하나였던 낙랑군은 대동강 인근에 위치한다¹⁾. 낙랑군과 관련된 유적은 평양지역에서 수없이 발굴되어 그 고고학적 증거가 이루어졌는데, 그 본격적인 시작은 조선총독부(이하 총독부)가 1916년에 「고적조사위원회(古蹟調査委員會: 이하 위원회)」를 설치하고 낙랑군이 있었던 평양지역을 집중적으로 발굴한 것부터였다. 식민지배가 지속되는 동안 계속해서 낙랑군과 관련된 유적은 늘어난다.

총독부가 한반도 전 지역 중에서 평양지역 발굴에 각별한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낙랑군이라는 역사의 주체가 중국인이었으며, 그 강조는 조선역사의 타율성과 연결되기 때문이었다. 총독부는 삼국시대 이전의 역사는 조선의 역사가 아닌 중국의 역사라고 규정하려 하였고, 낙랑군은 중요한 증거였다. 뿐만 아니라 삼국시대 이래의 조선의 문화 발달도 낙랑군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지배에서 연유하였다고 인식하고자 했다. 이 인식의 출발은 발굴과 연구 그리고 전시로 이루어지는 실증적인 것이어야 했다.

1928년 평양부립박물관의 설립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였다. 1910년대이래 축적되어 온 낙랑지역의 유물을 조선총독부박물관에만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물이 발굴된 곳인 평양에도 전시하는 것이 바람직했다. 발굴과 연구를 통해 박물관에 유물이 전시되고 나면 그 유물과 관련된 내용들은 고고학적 가정을 뛰어넘어 역사적인 사실로 탈바꿈하게 된다. 박물관이 총독부가 가진 역사적 인식을 실증적으로 재구성하는 셈이었다.

일제 강점기 박물관을 주제로 한 선행연구들을 보아도 박물관을 통한 총독부의 역사인식 형성에 대한 일면을 파악할 수 있다. 전경수는 총독부박물관의 경영방침, 진열실의 배치 등을 설명하면서 총독부박물관이 가진 한국의 역사와 문화의 축소 의도, 은폐논리를 강조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조선총독부는 “지배와 피지배의 양식이 변해 버린 식민지 상황에서 새로운 지배자에 의해서 과거의 지배자가 그 지배자의 지배를 받던 대상물들로 하여금 지배 당하도록 하는 맥락의 재구성”을 일어나게 하고 있음을 주장했다²⁾. 목수현은 총독부의 고적조사사업과 박물관 설치·운영이 무관하지 않음을 주시하였고, 박물관 정책이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 임나일본부설(任那日本府說) 등의 조작적 증명을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³⁾. 최석영은 각 부립박물관의 설립경위와 전시내용을 언급하면서 지방 분관들의 성격이 “총독부가 식민지 지배의 역사

1) 李基白, 1999, 『韓國史新論』(서울:一潮閣) 40.

2) 전경수, 1998, 「한국 박물관의 식민주의적 경험과 민족주의적 실천 및 세계주의적 전망」 『한국인류학의 성과와 전망』(서울:집문당); 666-675.

3) 목수현, 2000, 『일제하 박물관의 형성과 그 의미』(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1-73.

적 명분을 찾기 위해서 정력적으로 추진한 각 지역의 고적발굴의 성과를 그들의 해석을 통하여 일반인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었음을 주장하였다⁴⁾. 이러한 연구들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사실은 일제 강점기에 박물관을 중심으로 한 유물의 조사와 보존은 매우 식민주의적이었던 점이다. 곧 일제의 역사인식을 조선인에게 강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도록 하려는 것과 박물관이 연결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제는 고적조사보존사업 등을 통해 조선사에 대한 그들 나름의 실증적인 증거들을 마련하였다. 이 증거들은 그들이 세운 이왕가박물관, 조선총독부박물관과 분관, 부립박물관 등을 통해 전시라는 이름으로 공개되며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른바 일제가 가진 식민사관을 합리화하기 위한 도구로 박물관이 이용되고 있는 측면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개별 박물관을 구체적으로 연구한 것은 아니었고, 새로운 역사적 인식이 박물관을 통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내지는 못하고 있다. 평양부립박물관은 바로 이러한 총독부의 의도적 역사인식의 형성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곳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첫째, 낙랑군과 관련하여 일본인들은 어떠한 역사인식을 가졌는지, 둘째, 어떠한 절차를 통해 그 역사 인식이 확대되었는지, 셋째, 그 결과로 나타난 평양부립박물관은 어떠한 곳이었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일본인들의 낙랑군에 대한 인식

낙랑군이 한반도에 있었다는 것은 한국 고대사의 중요한 사실이다. 곧 “중국 한나라는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그 영토 안에 낙랑, 진번, 임둔, 현토의 네 군을 둔다. 그 중 낙랑군은 대동강 유역에 위치했는데, 한나라의 식민정책의 중심지였다. 낙랑군에는 한나라로부터 관리와 상인들이 와서 살면서 식민도시를 경영했다⁵⁾.”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식은 언제부터 일본인들에 의해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일까. 그것은 일제 식민지배가 시작되면서부터라고 말할 수 있다. 쿠로이타 가쓰미(黑板勝美)는 1921년 도쿄에서 열린 조선문화강연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고분연구로부터 상당히 오래된 시대의 고분이 조선의 북쪽에 분포되어 있다 생각했다. 그래서, 압록강으로부터 조금씩 대동강, 그 중간의 成川강 같은 유역을 조사해 왔다. 그리고 가장 중국식의 묘가 있는 곳은 대동강 유역이었다. <중략> 평양은 중국 식민지로 말할 수 있는데, 중국인이 발전시킨 최초의 중심

4) 최석영, 2001. 『한국 근대의 박물관 · 박물관』(서경문화사).

5) 李基白, 1999. 『앞책』(주 1) 41.

지였다. 평양을 중심으로 하여 남측에 인접한 토성이 있었는데, 이 토성에서는 후한시대 낙랑군의 기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중략> 이 평양부근이라고 불리는 곳은 진실로 중국화 되었다고 생각한다. 중국에서 발견되는 기와가 평양부근에서도 발견되기 때문이다. <중략> 중국문화가 조선에 들어오게 되자 이 부근에 서 살던 사람들이 다른 곳을 향해서 떠날 수밖에 없었다⁶⁾.

그는 자신이 직접 낙랑군이 있었다고 하는 대동강 유역의 중국식 고분들을 조사하고, 그 일대를 중국인이 발전시킨 최초의 중심지라고 단언한다. 평양 인근은 완전히 중국화되었던 곳이었으며, 그 안에 살던 고조선 사람들은 적어도 다른 곳에서 살았다고 주장한다. 이는 대동강 유역의 평양지역이 오랫동안 중국의 식민지 또는 중국인들의 집단 거주지였으며, 이는 조선의 고대문화 발전의 기틀이 되었다는 주장을 가능하게 한다. 이른바 실증에 기초한 이러한 주장은 그 후에도 동일하게 받아들여진다. 오오하라 토시타케(大原利武)의 낙랑군에 대한 생각도 동일하다.

조선은 남과 북의 역사가 다르게 전개되었다. 경기도 이남에는 마한, 진한, 변한의 3한이 70여 개로 나누어져 있었다. 황해도로부터 북쪽으로는 남쪽 만주에 걸쳐 조선이라고 불리는 국가가 있었다. 이 조선을 중국이 멸망시키고 낙랑군이라고 불리는 군을 두었다. 곧 중국의 영토가 된 것이다. 이것이 대략 420년 정도 영토가 되어 있었다. 이 때 중국의 문화가 유입되어서 그 유물이 많이 남아 있다⁷⁾.

평양에 있었던 낙랑군의 존재는 중국 한나라가 잠시 한반도를 지배한 것이 아니라 400년이 넘는 시간동안의 지배를 의미했다. 적어도 그 시간 동안 한반도는 한국이 아니라 중국이었으며, 무수하게 발견되는 낙랑유물의 존재가 이를 증명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는 역사 영역의 주장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까지 파급되는데 미술·공예에 대한 인식까지도 규정하였다. 세키노 타다시(關野貞), 아사카와 하쿄(淺川伯教)는 조선미술과 공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조선의 미술은 낙랑시대에 漢민족의 양식을 수입해,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시대에 들어와서 발달의 정점을 달성했으나, 고려시대에 다소 衰兆하기 시작해 조선시대에는 더욱 衰頹墮落을 거듭하기에 이르렀다. 근세 조선인은 취미가 결여되고, 미술 애호심이 결여되어, 古物 보존의 정신이 거의 없어서, 예전부터 건설되어 왔던 문화의 귀중한 유적은 지금 소멸해 가기에 이르고 있다⁸⁾.

6) 黑板勝美, 1921. 「朝鮮の歴史的觀察」 『朝鮮』(朝鮮總督府)8, 48~68.

7) 大原利武, 1927. 「朝鮮文化の變遷に就て」 『朝鮮』(朝鮮總督府)11, 41~43.

8) 關野貞, 1940. 『朝鮮美術史』(朝鮮史學會) 1.

조선에서 낙랑, 삼국, 신라, 고려, 조선의 각 시대를 통하여 그 공예의 특색이 있었으나 대륙에서 가까이 있어서 직접 그 영향을 받은 것이 많다. 곧 낙랑의 漢 공예가 그렇고, 삼국은 六朝, 신라는 당, 고려는 송, 조선은 명의 영향을 받았다⁹⁾.

이러한 인식은 조선 역사의 타율성이라는 측면을 부각하는 동시에 중국의 직접적인 지배에서 멀어져 갈수록 그 문화적 수준이 낮아지고 있다는 주장과 동일한 것이었다. 중국 한나라가 조선을 지배했을 때는 문화적으로 성숙했지만 그 이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뜻이다. 결국 다른 어떤 민족이 중국의 위치를 대신해야 한다는 생각이 그 저변에 있었다.

이러한 인식들은 어디에서 그 출발을 두는 것일까. 쿠로이타의 주장에서 알 수 있듯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고고학적 증거물들에서 그 출발점을 두고 있다. 일제가 정력적으로 수행했던 고적조사보존사업은 결국 낙랑군의 존재 등과 같은 타율적 조선사의 증거들에 대한 수집과 정리였던 셈이다. 다음과 같은 실증적인 내용이 그것이다.

이번에 발굴한 고분은 10기인데 이것을 1호부터 10호로 이름 붙였다. 1호에서 6호는 貞栢리에 속하고 7호부터 10호는 石巖리에 속한다. 낙랑시대 고분은 대부분의 경우 높고 건조한 지역에 만들어졌다. 어떤 것은 高臺아래 평야에 만들어진 것도 있다. 그 외형은 대체적으로 사각의 아래 면이 있고, 윗면은 평평하고 그 단면은 마치 袴腰 모양을 하고 있다. 양쪽에 斜面을 만들어 놓았다. 이런 형태는 중국에서 周나라부터 漢시대 고분에서 행해졌던 것으로 낙랑시대 고분은 대부분 이런 形狀을 하고 있다¹⁰⁾.

고적조사보존사업이라는 실증적인 증명절차는 낙랑군에 대한 인식을 확대시킨다. 이러한 인식은 동시대를 살던 조선인들에게도 강제되었던 사항이며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물과 함께 지금까지 이른다.

Ⅲ. 낙랑군에 대한 인식의 확대 : 고적조사보존사업

그렇다면, 일제 강점기 조선에서의 낙랑군에 대한 인식의 확대는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이는 고적조사보존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이다. 일본인들은 구한국시대와 일제 강점 초기 조선의 유물을 조사하였으나, 보다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고적조사사업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 총독부는 고적조사의 계획과 이에 수반하는 고적에 관한 사항을 「고적조사위원회」를

9) 淺川伯教, 1936. 「工藝の内容と我々國工藝の過去に就て」 『朝鮮』(朝鮮總督府) 5, 123.

10) 關野貞, 1917. 「樂浪時代の遺蹟」 『朝鮮叢報』(朝鮮總督府) 1, 3~25.

설치하여 행하게 했다¹¹⁾.

1. 「고적조사위원회」

총독부는 1916년 7월 총령(總令) 제52호로 「고적급유물보존규칙(古蹟及遺物保存規則)」8개조를 반포하는 동시에 총훈(總訓) 제29호로 「고적조사위원회규정(古蹟調査委員會規程)」11조를 정했다. 이 규칙과 규정에 따라서 위원회가 창설되었는데, 위원회는 조선총독의 고적보존과 조사에 관한 자문기관이 되는 동시에, 조사와 보존의 사무기관의 성격을 지녔다¹²⁾. 위원장은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이 맡고, 위원은 총독부에 있는 관계 부국(部局)의 고등관, 한국과 일본의 관계 전문가였다¹³⁾. 위원회는 고적조사비라는 총독부의 임시비에 의해 조사, 보존, 등록, 출판의 사업을 행했다. 고적조사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된 것인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조사는 각 시대의 유적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를 발굴, 촬영, 측도하고 상세한 학술적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② 보존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실측하고, 중요한 것은 박물관 직원에 의한 공사설계에 의해 지방청의 경비를 배부해 시공하는 것이었다. ③ 등록은 고적과 유물의 주소, 명칭, 토지소유자, 대소형장, 유래전설의 각 항을 기록대장에 기재에 의하여 정하는 것이다. ④ 출판은 고적조사 보고서와 고적도보에 매년 조사를 보고하기 위한 것과 특별조사보고의 두 종류가 있었다¹⁴⁾.

유적을 조사할 때에는 연도별로 계획을 정하였다. <표 1>은 위원회의 연도별 고적조사 지역이다¹⁵⁾.

11) 朝鮮總督府, 1916. 『朝鮮彙報』(朝鮮總督府)6, 212~213.

12) 朝鮮總督府, 1916. 『앞책』(주 11) 3~9; 藤田亮策, 1931. 「朝鮮に於ける古蹟の調査及び保存の沿革」『朝鮮』(朝鮮總督府)12, 89~90(위원회는「고적급유물보존규칙」과 「고적조사위원회규정」에 의거해 활동했다. 「고적조사위원회규칙」에는 위원회의 구성(제1, 2, 3, 4조), 심의와 보고사항(제5, 6조), 실시조사시 보고사항과 범위(제7, 8, 9, 10조) 등이 명시되어 있었고, 「고적급유물보존규칙」에는 유물의 조사와 등록(제2, 4조), 유물 발견자의 의무(제3조), 유물의 현황 변경과 이전(제5, 6조), 매장물 발견시 보고사항과 위반자 규정(제7, 8조)이 명시되어 있었다. 이와는 별도로 내훈(內訓)으로 「고적급유물조사사무심득(古蹟及遺物調査事務心得)」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실제 조사시의 행동강령(제1, 2, 3, 4조)에서 고적조사보고서 작성 의무(제5, 7조)까지 명시되어 있다(朝鮮總督府, 1922. 『大正五年度古蹟調査報告書』(朝鮮總督府) 3-9).

13) 藤田亮策, 1931. 「앞글」(주 12) 93.

14) 藤田亮策, 1931. 「앞글」(주 12) 96~97.

15) 朝鮮總督府, 1916. 『앞책』(주 11) 1~3.

〈표 1〉 「고적조사위원회」의 연도별 고적조사 지역

연도별 조사지역	1916년	① 한이 군현제를 실시했던 지역과 고구려 - 황해, 평안남북, 경기, 충청북도, ② 유사전 : 위 지역과 동일
	1917년	㉠ 한이 군현제를 실시했던 지역과 고구려 - 황해, 평안남북, 경기, 충청북도, ㉡ 유사전 : 위 지역과 동일
	1918년	㉠ 전년도 잔여, ㉡ 삼한, 가야, 백제 - 경기, 충청남북, 경상남북, 전라남북, ㉢ 유사전 : 전항과 동일
	1919년	㉠ 전년도 잔여, ㉡ 신라 - 경상남북, 전라남북도, ㉢ 유사전 : 전항과 동일
	1920년	㉠ 전년도 잔여, ㉡ 고려 - 경기도, ㉢ 유사전 - 전항과 동일

1916년의 고적조사 사항을 보면 이러한 고적조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1916년 8월부터 1917년 3월까지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조사대상은 한사군 지역이 중심이었고, 그 지역은 황해도, 평안남북도, 경기도, 충청남북도에 이르는 곳이었다.

① 황해도 : 평산군내 고분 약 10기, 은율군내 고분 약 10기, 황주군 齊安면의 고분 10기, 황주군 黑橋면 고분 2기, 봉산군 문정면, 고분 10기, 楚郊면 고분 5기, 사리원역 동남쪽의 고분 5기, 土城면 고분 10기, ② 평안남도 : 대동군 대동강면 고분 30기, 장수원 부근 고분 30기, 립원면 고분 20기 등, ③ 평안북도 : 정주군 광산면 고분 10기 등¹⁶⁾

위원회의 조사사업은 총독부가 그 경비를 지원해 다양한 지역으로 조사위원들을 파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었고, 이후 총독부가 재정적으로 고적조사보존사업을 뒷받침할 여력이 없을 때에도 고적조사보존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동인이었다.

고적조사는 1917년 5월 7일에 시작해 1918년 1월 14일에 종료했고, 조사에 종사한 사람은 위원으로 黑板勝美, 關野貞, 今西龍, 鳥居龍藏, 谷井濟一이고, 측량, 제도, 촬영을 위해 박물관 직원 4명, 토목국 직원 1명, 임시용인 1명이 동행했고, 통역을 위해 중추원 직원 2명이 동행했다.

谷井위원은 1917년 5월 7일 경성을 출발하여 측량원 3명과 같이 먼저 황해도 鳳山郡에 이르러 文井面 石城里 內洞 唐土城, 松山里와 胎封里의 고분 楚臥面 柳亭里, 養洞里과 立峰里的 고분, 大靑里 長洞의 고분군, 洞仙面 高山寺의 대웅전, 삼층석탑, 사적비 등을 조사했다. 順川郡에 들어가서는 仙沼面 檢山洞의 고

16) 朝鮮總督府, 1916. 『앞책』(주 11) 10~13.

분, 斜川洞의 墓塚출토지, 石泉洞의 고분, 北倉面 松鷄里의 고분등을 조사했다.

關野위원은 6월 11일 경성을 떠나 12일 평안북도 雲山郡에 가서 谷井위원 일행과 함께 東新面, 龍湖里 帝坪洞의 고분 委延面 克城洞의 萬里城을 조사했다. 渭原郡에 들어가서는 渭城面 萬戶洞의 고분군, 密山面 舊邑洞 舍長里의 고분, 西泰面 新川里의 고분군을 조사했다. 또한 압록강을 넘어 중국 奉天省 輯安縣을 넘어 融和堡高力墓子東山谷의 지형과 부근의 고분군 등을 조사했다⁷⁾.

이러한 고적조사위원 개인들을 중심으로 한 고적조사사업이 가능했던 것은 실제로 다양한 훈령 등에 의해 고적조사사업의 계획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그 계획대로 고적조사위원들이 움직이게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서 평안남도를 중심으로 하는 낙랑군 일대의 조사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1916년 關野, 谷井, 栗山이 대동강면에 있는 10기의 고분을 발굴해서 처음으로 塼廓고분과 목곽고분의 존재를 알리고 다수의 동기, 철기, 옥기, 토기 이외에 철기 공예품을 발견했다. 처음으로 漢代 銅器의 확실한 연대를 추정했다. 1923년에는 藤田, 小場 양 위원이 大洞江面에서 4기의 목곽분을 발굴했다. 1924년에는 동경제국대학 문학부에서 조선총독부의 허락을 받아 黑板, 原田이 2기의 고분을 발굴하고 그 고분을 완전히 보존했는데, 목곽, 목관의 구조를 밝힐 수 있었다¹⁸⁾.

총독부는 조선의 역사 중 중국 한나라의 지배를 유물과 유적에 바탕을 두어 증명하려 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중국의 지배를 강조할수록 조선역사는 중국역사에 예속된 타율적인 것이 될 수 밖에 없고, 이는 중국을 제압하고 동아시아의 패권을 차지한 일본이 그 위치를 대신해야 한다는 이른바 식민지배의 당위성과도 연결된다. 더욱이 이러한 고적조사보존사업은 보고서와 고적조사도보의 출판으로 마무리되면서 더욱 확실한 사실로 자리잡는다¹⁹⁾.

2. 「조선고적연구회(朝鮮古蹟研究會)」

위원회를 통한 고적조사보존활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열기가 식어간다. 실제로 총독부의 긴축재정정책에 따라 고적조사와 관련해서 총독부 고적조사과 구성원 중 1923년에 전임숙

17) 朝鮮總督府, 1918, 『朝鮮叢報』(朝鮮總督府)11, 82-91.

18) 藤田亮策, 1931, 「앞글」(주 12) 102~110.

19) 다음은 조선총독부에서 간행한 고적조사사업에 관한 보고서와 도록들이다. ① 고적도보 : 제1책 『樂浪帶方及び高句麗』(1915) 등 15책, ② 고적조사특별보고 : 제1책 『平壤附近に於ける樂浪時代の墳墓』 등 7책, ③ 고적조사보고 : 1916년 『京畿道平安南北道調査報告』 등 19책(藤田亮策, 1931, 「앞글」(주 12) 104~110; 藤田亮策, 1951, 「朝鮮古文化財の保存」 『朝鮮學報』(朝鮮學會)5, 247-248).

(專任屬) 1명 촉탁 2명이 감원되었고, 1924년에는 고적조사과도 없어지게 된다²⁰⁾. 결국 이 이후 후의 대륙침략과 함께 고적조사보존사업에 대해 총독부는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총독부는 사립단체라고 할 수 있는 「조선고적연구회(이하 연구회)」를 통하여 고적조사보존사업을 계속하게 한다²¹⁾.

연구회는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얻어 고적 조사를 실시하고 유물을 총독부박물관으로 가지고 오는 방식으로 고적조사를 실시했다. 연구회는 쿠로이타의 노력으로 설립된 것이었으며, 1933년에는 일본학술진흥회의 보조금 등을 받아 연구회사업을 진행하였고, 1941년까지 계획적 조사보고서를 발행했다. 연구회는 조선총독부박물관 경주분관에 경주연구소를, 부여분관에 부여연구소, 평양부립박물관에 평양연구소, 전임 조사원을 배치해서 발굴조사에 임하게 했다. 평양연구소는 낙랑토성, 고분을 조사하고 고구려 고분 사지를 조사했다. 연구회는 처음에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이 이사장이었고, 후에는 학무국장이 이를 승계했다. 경주, 평양연구소의 주임으로는 고고학 전문가를 두었고, 현지에 거주하여 조사, 정리, 보존의 사업을 직접 행하게끔 조직했다²²⁾.

연구회를 중심으로 한 고적조사사업의 주요한 영역 중의 하나도 낙랑군과 관련이 있다. 연구회는 1933년부터 3개년간 평양 낙랑군 유적을 발굴하고 보고서를 내기 위해서 일본학술진흥회로부터 매년 1만 5천원의 보조금을 받았으며, 일본 국내성으로부터 연액 5천원을 받았다. 이 금액으로 낙랑유적을 중심으로 고적조사사업을 실시한다. 1937년에 이르면 낙랑유적에 대해서는 하라다(原田)를 중심으로 하여, 5월부터 전후 3회의 조사를 실시한다²³⁾.

연구회를 중심으로 일제 강점말기까지 조선고적연구가 계속되었다. 이러한 고적조사는 강점 초기부터 정력적으로 실시했던 것과는 달리 그 규모가 많이 줄어들었으며, 실제 조사는 연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낙랑 등의 영역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연구회는 실제 발굴조사에 필요한 경비만을 지불하였고, 전임연구원을 두지 않고, 수시로 조선총독부박물관과 제실박물관의 직원, 도쿄(東京)대, 경성대 교수를 위촉하여 조사하게 하는 형식이었다. 이렇게 하여 일제 강점기 말까지 낙랑군 등의 유적 발굴을 계속하게 된다²⁴⁾.

20) 崔錫榮, 1997, 「일제의 동화 이데올로기의 창출」(서울: 書景文化社) 278-179

21) 최석영, 2001, 『앞책』(주 4) 89.

22) 조선고적연구회연구소 주임으로는 “경주연구소 - 有光教一, 齋藤忠, 大坂金太郎, 부여연구소 - 藤澤一夫, 평양연구소 - 小泉顯夫, 小場恒吉, 田窪眞吾”가 있었고, 조선고적연구회에 만들어 낸 출판물로는 “① 古蹟調査概報 : 『경주고적조사개보』(1933년), 『낙랑고분조사개보』(1934년), 『낙랑고분조사개보』(1935년), 『낙랑고분조사개보』(1936년), 『고적조사보고』(1937년), 『고적조사보고』(1938년), 『고적조사보고』(1939년), ② 고적조사보고 : 『樂浪彩筐塚』(1934년), 『樂浪王光墓』(1935년)”가 있었다(藤田亮策, 1931, 「앞글」(주 12) 256~257).

23) 藤田亮策・梅原末治, 1938, 『昭和十二年度古蹟調査報告』(朝鮮古蹟研究會) 1-4.

24) 有光教一, 1984, 「私の朝鮮考古學」『三千里』38, 230.

3. 「평양고적보존회」

총독부의 고적조사보존사업은 방대했기에 총독부박물관을 중심으로 한 행정조직만으로는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없었다. 각 지방 사람들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계기를 통해 만들어진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의 고적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많은 고적조사보존회가 설립되는데, 평양지역에는 「평양고적보존회(이하 보존회)」가 설립된다.

1913년에 설립된 보존회는 민간의 기금을 통해 만들어졌는데, 테라우치(寺內) 총독을 비롯한 각지 관민의 참여로 이 기금은 1만 6천여 원에 달하였다. 이 자금을 가지고 평양 모란대(牡丹臺) 부근의 명승고적 유지 수리, 도로 개착, 성벽 수리, 식목 등의 사업을 하였다. 총독부에서도 보존 필요가 있어 대동문(大同門), 연광정(練光亭), 부벽루(浮碧樓), 을밀대(乙蜜臺), 보통문(普通門) 등의 유지 수리를 담당하기도 한다²⁵⁾. 곧 보존회는 지방유지들의 참여를 통해 기금을 만들고 이 기금을 가지고 평양주변의 고적을 보전하였던 것이다.

일부 고적보존사업은 보존회를 통해서 행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1918년에 보존회장 혼다 쓰네키치(本田常吉)가 평안남도지사를 통해 총독부에 보내는 고적유물보존에 관한 문서를 보면 고적보존사업이 지방 고적보존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玄武門：樓門이 전부 파손, 이의 건설 및 石門의 수리를 요하는 비용 6천원, ② 鐘閣：舊鐘路에 건설된 종각은 모두 파손, 이를 세우는 비용 9천원, ③ 轉錦門：樓門이 거의 腐朽해서 위험한 상태로 建換을 요할 뿐만 아니라 石門에 상당한 수리를 요함, ④ 得月樓：得月樓는 牡丹臺에 있어 古建築物로 지금 거의 腐朽되어 대수리를 요함, 3천원, ⑤ 箕子宮：箕子宮은 심히 廢頽되어 상당한 수리를 요함, 2천원, ⑥ 牡丹臺의 정리：牡丹臺는 평양 유일의 구적이다. 이의 정리를 요함, 3천원, ⑦ 城壁：舊平壤 城壁은 이미 廢頽하거나, 혹은 廢頽된 것으로 이의 수리를 요함, 2만원, ⑧ 道路 등을 만듦：牡丹臺 부근에서 고적을 연락하는 도로 등, 1만원, ⑨ 나무를 심음：古蹟 소재 부근 일대에 벚꽃 기타 紅葉樹 등 風致를 더하기 위해 나무를 심을 필요 있음, 3천원²⁶⁾

곧 보존해야 할 고적에 얼마만큼의 금액이 들어가는지를 표시해서 조선총독에게 보냈는데, 이 고적유물 보존에 5개년 동안에 총경비 6만원이 들어감을 말하고 있다. 그 내용은 <표 2>와 같다.

25) 國立中央博物館, 1996. 「國立中央博物館 保管 古文書 目錄」, 105-5-03.

26) 國立中央博物館, 1996. 「앞글」(주 24) 105-5.

〈표 2〉 평양고적보존회 연도별 유물 보존계획(단위 : 원(圓))²⁷⁾

연도	1919	1920	1921	1922	1923	계
국고보조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부비보조	1,500	1,500	1,500	1,500	1,500	7,500
기부금	500	500	500	500	500	2,500
계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60,000

대부분의 고적보존사업 비용이 국고와 부비(府費) 보조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동시대의 고적보존사업이 위원회뿐만 아니라 각 지방별 고적보존회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조선총독부의 예산 과목(科目)으로 지방청전릉(地方廳殿陵) 및 고적수선비(古蹟修繕費)가 있었는데, 각 지방청에서 고적보존예산을 신청해 오면 이를 심사해 예산을 배정하였다²⁸⁾. 각 지방청 내에는 대부분 그 지방의 고적보존회가 설립되어 있었기에 이 예산의 집행은 실제로는 고적보존회에서 담당했을 가능성이 컸다. 이 경우 고적조사위원회가 하는 일은 고적보존을 요하는 장소에 가서 고적보존비를 얼마만큼 지출해야 하는가의 결정을 내리기 위한 조사를 하는 것이었다²⁹⁾.

이러한 예를 통하여 볼 때, 각 지방별로 설립된 고적보존회는 총독부가 추진하던 고적조사보존사업을 지방에서 보조하던 현지시행부서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조선총독부의 동 사업이 지방민들의 도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지방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한 것이기도 했다.

IV. 낙랑군 인식의 고착화 : 평양부립박물관 설립

총독부는 평양을 중심으로 한 낙랑군 지역에 대한 고적조사보존사업을 통해 다수의 낙랑관련 유물들을 얻을 수 있었다. 보존회를 중심으로 하는 유적보존사업도 활기를 띠었기에 총독부는 이를 토대로 평양부립박물관을 설립하게 한다.

평양부립박물관은 3천년의 오랜 역사가 있는 평양의 명승고적을 보존하고 역사연구의 자료로 하기 위한 목적으로 1913년에 설립된 보존회가 그 시초였다. 보존회는 그 후 낙랑유물 보존과 명승고적의 선전과 풍경의 유지, 관리 노력을 해왔다³⁰⁾. 이러한 노력으로 1928년에는 평양

27) 國立中央博物館, 1996. 「앞글」(주 24) 105-5.

28) 國立中央博物館, 1996. 「앞글」(주 24) 99-1.

29) 國立中央博物館, 1996. 「앞글」(주 24) 107-2.

부 옥정(旭町)³¹⁾의 도서관 3층을 빌려 진열실로 충당했다. 도교육회와 이 지방 수집가인 세키 구치 나카바(關口半), 카마타 후지(富田普二), 하시즈메 호스(橋都芳樹), 모로오카 에지(諸岡榮治) 등과 중학교, 고등보통학교의 기탁을 받아 소규모의 고고(考古) 박물관의 형태로 진열실을 운영한 것이다³²⁾. 이 당시의 전시는 아래의 관람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층으로 가니 계단의 측벽에는 집안현 好太王卑의 拓本이 천장에서부터 내리워져 있었다. 또한 踊場(층계참)에는 거의 실물크기의 樂浪塼墓의 단면이 실물 塼을 사용하여 축조되어 있었다. 진열실은 개성박물관과 비슷하게 약 80평의 큰 홀로 되어 있었다. 총 전시물의 수는 700여 점에 이르는 많은 것이었고 진열장의 수도 많았다. 중앙부에는 큰 4개의 진열장이 놓여 있었다. 비교적 대형의 유물이 진열되어 있었는데, 유명한 永光 3년의 紀年銘이 있는 孝文廟 동종이 있었다. 또한 富田普二 出陳이라는 라벨이 있는 동종과 같은 형식의 靑釉鐘形陶器는 낙랑유물로서 美事한 것이었다. 다음 진열장에는 한나라식 토기로 특징이 있는 것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이 중에는 素燒土器에 魚蓴書繪文이 있는 것이 특히 흥미가 있었다. 왼쪽의 진열장에는 奏戈로 유명한 창을 중심으로 많은 劍鋒, 太刀의 종류가 진열되어 있었다. 모두 關野의 낙랑시대의 유적에서 보았던 것들 뿐이다. 이러한 진열장을 중심으로 주위에는 다수의 진열장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유사이전의 유물들이 있었다. 美林里 부근에서 출토된 석기류부터 낙랑, 고구려의 각 유품이 순서대로 작 진열되어 있었다. 그 사이에 1925년에 발굴된 王肝墓 목곽분 모형과 강서벽화 고분모형, 또는 낙랑고분의 遺財로 만든 목곽 단면에 一區郭의 실물 목관을 진열하여 놓았다. 낙랑고분 출토품으로는 이것 이외에도 칠기단편 중 우수한 것, 樹枝狀 燈架, 유약을 바른 耳杯, 동물 明器, 五珠錢을 裝鈿한 목관단편 등이 있다³³⁾.

평양부립박물관은 1930년대가 되면 그 규모가 더욱 커져 새롭게 박물관을 건설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 박물관을 건립함과 동시에 총독부박물관 분관이 되고자 하였지만 실현되지는 않는다. 1931년 4월 쿠로이타 카츠미와 후지타 료사쿠 총독부박물관 주임, 후지와라(藤原), 오오시마(大島) 부윤과 기타 유지의 발의로 총독부박물관 분관 설치를 주장했으나, 경비의 문제로 실현되지는 못했다. 후에 다시 후지와라 도지사와 쿠로이타 카츠미가 지방유지들을 종용해 관민합동으로 총독부박물관 설치기성회를 설립했고, 평양명승고적보존회가 여기에 협력하였다. 박물관 건설사업은 보존회에 일임하고, 건물의 완성 후에 총독부분관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보

30) 朝鮮總督府, 1932. 『朝鮮』(朝鮮總督府)5, 145.

31) 옥정은 평양부내 한가운데에 위치했는데, 대동강 왼편이었고, 泉町의 오른편이었다(朝鮮總督府, 1932. 『平壤府』(朝鮮總督府)).

32) 『조선일보』, 1927. 2, 17; 3, 26; 朝鮮總督府, 1933. 『朝鮮』(朝鮮總督府)12, 115-117.

33) 小泉顯夫, 1933. 『朝鮮博物館見學旅日記』 『ドルメン』(岡書院) 4, 41-42.

준회가 보존회의 재산과 도부(道府)의 보조금, 일본인과 한국인 독지가의 기부 등으로 박물관을 완성하게 되었다. 1932년 7월에 공사를 시작해 1933년 9월 8일에 박물관을 준공했으며 총공사비는 7만원이 넘게 들었다. 그렇지만 분관으로 되지는 못하였다³⁴⁾.

새롭게 지어진 평양부립박물관은 평양 을밀대 부근에 있었다. 본관은 “口”자형의 건물로 2층은 130평, 1층은 160평이었다. 별관은 보통집으로 75평인데 25평은 창고이고 나머지는 정리실, 관장실, 사무실, 직원실, 숙직실 등이 있었다³⁵⁾. 또한 이 박물관은 우메하라(梅原) 동경대 교수 등이 설립준비를 하였고, 동경미술학교 고바(小場) 강사에 의해 발굴된 낙랑고분목곽을 원형 그대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다³⁶⁾. 평양부립박물관은 “낙랑문화연구소”를 신설했고, 일본학술진흥회로부터 1만5천원의 기부를 받아 3개년간 다수의 고분발굴을 할 계획을 세웠다³⁷⁾.

본관은 총평수 232평의 철근 콘크리트로 건물로 진열실 외에, 사무실, 연구실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진열실은 빗장을 쳐서 좌우 두개로 구분했고, 우측진열실은 익실(翼室)과 연결해 7개의 전시실로 나누었다. 또한 본관 우편에는 채광총목곽관(彩筐塚木槨館)과 전곽분(塼槨墳)이 있고, 본관 사무실과 접해있는 곳에는 연와조 조선양식가옥이 있어서 창고, 숙직실, 수위실로 쓰고 있다. 진열은 유사이전 석기사용 원시시대부터 대륙문화의 남진에 따른 금속문화의 단계로 진전하고, 다시 한 낙랑군의 한대문화발전시대, 그 다음에 고구려 왕조의 성시와 아울러 신라, 고려, 조선시대에 이르는 대동강변을 무대로 문화진전과 민족흥망의 역사를 관람자가 와서 볼 수 있게 배열했다. 이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평양부립박물관의 전시물³⁸⁾

구 분		전 시 물
제1실		현관, 홀(廣間), 휴게실, 평양시가고지도
제2실	서벽	유사이전 - 석기, 토기, 석검, 낙랑군이전 - 명도전(明刀錢), 布泉(포천), 세형동검, 동모(銅矛), 동용범(同鎔範), 차여금구(車輿金具)
	북벽	낙랑군시대 - 낙랑군치지(治址), 토성출토각종유물, 유물사진, 도기, 동철족(銅鐵鍬), 호선비(祜禪碑) 모조품

34) 朝鮮總督府, 1933. 『朝鮮』(朝鮮總督府)12, 115-117.

35) 朝鮮總督府, 1932. 『朝鮮』(朝鮮總督府) 5, 145.

36) 日本博物館協會, 1933. 『博物館研究』(日本博物館協會)7, 7.

37) 日本博物館協會, 1933. 『博物館研究』(日本博物館協會)10, 11.

38) 朝鮮總督府, 1938. 『朝鮮』(朝鮮總督府)6, 100-101.

구 분		전 시 물
제2실	동측중앙	낙랑군시대 - 각종 기년명칠기(記年銘漆器), 청동기, 기년명동과, 동검, 칠기, 제경(濟鏡),
제3실		낙랑군시대 - 채관종 출토 각종 칠기, 왕간묘모형과 출토칠기
제4실		낙랑군시대 - 각종토기, 유명와전(有銘瓦埴), 명기, 장진리(將進里)30호고분출토 목관, 채관종출토 유물
제5실	동벽중앙	낙랑군시대 - 노(鷲), 동검, 각종칠기, 구장두(鳩杖頭), 웅각(熊脚), 각종 금동장식품, 각종장신구, 옥류, 거울, 견면(絹綿), 견포와 확대사진 등
	남벽	고구려시대 - 광개토태왕비탁본, 집안현(輯安縣) 출토 와전, 한성성벽석각문(石刻文)
	서벽	고구려시대 - 평양부근출토와당(瓦當), 불상, 각종칠기, 토기, 신라·고려·조선시대 - 와당, 불상, 도기 등
제6실		고구려시대 - 강서(江西)고분모형, 강서고분벽화 모사
제7실		淸日戰役記念室 - 광도(廣島)대본영사진, 현무문현액(玄武門懸額), 면회(綿繪), 당시 신문, 포탄, 소총탄
고분관		채광총목곽관은 1931년 가을 조선고적연구회의 발굴조사관계의 남정리(南井里) 제116호 고분의 큰목곽을 옮겨지은 것

평양부립박물관에는 낙랑군 시대뿐 아니라, 고구려 시대의 유물도 전시되었으며, 청일전쟁 당시의 유물도 전시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2실 북벽부터 제5실 동벽중앙에 이르는 절반 이상의 전시공간에 낙랑군 유물이 진열되었다. “낙랑박물관”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다.

특히 고구려 혹은 낙랑군 시대의 유물로 실제 고분을 그대로 이축하였는데, 이는 박물관 관람자들에게 흥미로운 볼거리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 내용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평양박물관을 장식할 장진리 45호 磚槨墳 이축은 小泉 박물관장의 손으로 실현을 보게 되어 이십이일부터 재발굴 사업을 개시하였는데, 금후 2개월 간의 예정으로 장마전까지 현재 박물관 특별부속실 내에 이축하기로 되었다. 이 고분은 磚石약 일반 오천개를 사용한 것으로 내부는 나무로 버티고, 한 장씩 헐어서 우차 백오십대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운반하여 오기로 되었는데, 이것이 완성되는 때에는 평양박물관의 일대 위관을 보게 될 것이며, 내부에는 전기를 점멸하는 장치를 하여 천천히 구경할 수 있게 하였다 한다

39)

39) 『조선일보』 1935. 4. 30.

이 전곽분은 기존에 있던 목관분과 함께 박물관의 주요한 관람요소가 되었으며, 관람료는 목관분과 전곽분을 합쳐서 20전이었다고 한다⁴⁰⁾. 이러한 고분의 이축은 관람자들에게 흥미를 더했는데, 그 흥미 속에서 고대 낙랑군의 존재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였다.

평양부립박물관은 그 유물에서 알 수 있듯이 낙랑군을 그 중심으로 삼고 있었다. 이는 평양부립박물관박물관 개관식 때의 총독의 축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략〉 조선고대문화를 천명하자면 반도역사 하나만을 되살려 장래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구시대 동양제국간의 연결, 교섭 등에 부족함이 있어서는 안된다. 당국은 고적의 조사보존에 힘쓰고 또한 경성에 박물관을 설치해, 넓은 고대의 유물을 수집 전시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광범위한 사업은 단지 중앙의 시설만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특히 각 시대문화의 중심지에 있어 그 시대를 표상하는 향토적 시설이 되어야 가장 적절한 것이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라의 구도(舊都) 경주에 박물관 분관을 두었고, 백제의 구도 부여에 백제관을 두었고, 고려의 구도 개성에 개성박물관을 두었으며, 이번에 평양에 이 박물관을 추가하게 되었다. 무릇 평양이라는 지역은 기자조선(箕子朝鮮), 한 낙랑군의 점령과 고구려의 옛땅이었고, 반도의 문화를 연구하는 것에 중요한 지점이다. 최근 낙랑군 통치의 조사가 수차 이루어지면서 유물이 계속 발견되어 크게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지금에 새롭게 이것을 정비해서 박물관을 설치해 보여주는 것은 대단히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⁴¹⁾. 〈후략〉

평양부립박물관은 지방의 유적보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세워졌으며, 특히 신라문화의 중심인 경주에 조선총독부박물관 경주 분관이, 백제문화의 중심인 부여에 백제관이 설립된 것과 함께 고구려 문화의 중심지역인 평양에 부립박물관을 설치함으로써 박물관의 지역적 균형을 맞추려고 했음도 알 수 있다. 이 지역은 그들이 생각하는 이른바 낙랑군이 있었던 지역으로 중국문화에 지배되었던 조선역사를 강조할 수 있는 곳이기도 했다.

조선총독부박물관에서 발간한 『박물관전시물도감』의 평양부립박물관의 전시물을 통해서 보더라도 평양부립박물관은 낙랑군 유물이 중심이었다. 이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표 <표 4>와 같다.

〈표 4〉 평양부립박물관의 시대·종류별 전시물⁴²⁾

시대별	종 류 별					
	기와류	석기, 동기, 철기류	금속공예류	기타공예류	건축류	총합
낙랑						
32	1	8	19	1	3	32

40) 『조선일보』 1935. 4. 11.

41) 朝鮮總督府, 1933. 『朝鮮』(朝鮮總督府)11, 122-123.

42) 朝鮮總督府博物館, 1943. 『博物館陳列品圖鑑』(朝鮮總督府) 17.

평양은 총독부가 정력적으로 고적조사사업을 펼쳤던 지역이며, 이 지역에서는 이른바 다량의 낙랑군 시대 유물이 출토되었다. 평양부립박물관의 전시내용도 이러한 낙랑군 시대의 유물과 관련될 수밖에 없었고, 고적조사사업에서 얻어진 유물들은 조선총독부에 귀속되었기 때문에 평양부립박물관에 있었던 유물들의 대부분은 조선총독부박물관에서 대부하는 형식으로 진열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시물 설명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발견할 수 있다.

낙랑시대 유물 : 永光三年銘銅鍾, 銅鼎, 銅鏃斗, 銅劍, 鐔金具 鑄型, 金銅馬面, 彩文漆盃, 瑇瑁, 永平 11년이 새겨진 漆耳杯, 각종 장신구, 內行花文鏡과 鏡袋, 絹織物, 臺付壺와 瓦甕⁴³⁾

위의 내용을 통해 볼 때, 평양부립박물관 전시에는 한나라가 한반도에 사군을 설치했던 것을 역사적 사실로 확연하게 드러내려는 노력이 드러난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는 박물관을 통해서 관람자들에게 보여짐으로 해서 이른바 낙랑군에 대한 인식을 고착시켰다고 말할 수 있다.

V. 결론 : 낙랑군 인식과 평양부립박물관 설립

조선이 일본과 강제로 병합된 후, 총독부는 조선사의 타율성과 조선문화의 저급함을 드러내려한다. 이를 토대로 한일합방이 당연한 것이라는 인식을 조선인들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었다. 그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바로 중국의 한반도 지배였고, 낙랑군의 존재는 유용한 내용이었다. 조선의 역사가 중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던 타율적인 것이었고, 중국의 직접적인 영향에서 벗어난 후에는 조선에 이르기까지 쇠망하고 있었음을 강조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였다. 이러한 일제의 낙랑군 인식은 다만 인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이른바 고적조사보존사업이라고 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서 확대되고, 이는 박물관 설립을 통해 고착되었다.

첫째, 조선총독부는 낙랑군을 확실한 실체로 인식하고 있었다. 평양 일대를 고대에 중국인이 발달시킨 최초의 중심지였다고 단언한다. 낙랑군은 고조선이 멸망한 후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수백년의 기간동안이었다고 보았고, 중국인들의 조선인 지배가 당연한 것이었다고 생각했다. 조선인들은 이 낙랑군을 통한 중국인의 지배로 문화적으로 성숙할 수 있었으며, 이후 조선 내의 여러 나라의 문화적 기저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았다. 결국 그 직접적인 영향에서 멀어진 조선시대에까지 오면 조선의 문화는 쇠락하여 그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본 것이고, 이는 중국이 아닌 새로운 나라 곧 일본의 지배로 귀결한다고 생각했다.

둘째, 낙랑군 인식은 인식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실증적인 증명절차를 거치는데, 이것이 바

43) 朝鮮總督府博物館, 1943.『앞책』(주 41).

로 고적조사보존사업이다. 고적조사보존사업은 위원회, 연구회 등이 주도해 갔고, 총독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더욱이 각 지방별로 만들어진 고적보존회를 중심으로 고적과 관련해서는 보존의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 이른바 낙랑군에 대한 인식의 확대인데, 유물의 발굴과 이에 대한 해석이 그 일익을 담당한다.

실제로 일제가 유물을 발굴하고자 하는 지역은 그들이 선택한 곳이었다. 총독부는 그들이 드러내고 싶어했던 지역과 그 역사에 그들의 역량을 집중하였고, 중국의 직접적인 지배와 관련이 있는 평양은 그 대표적인 지역이었다. 조선의 역사가 고대로부터 중국의 지배속에서 또는 중국의 지배를 통해서 발전해 왔다는 것을 드러내고, 이제는 그 위치를 일본이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을 평양지역의 고적조사보존사업을 통해서 말하고 있었다. 조선이라는 식민지의 지배를 그 기저로부터 확립하겠다는 전략이었다.

셋째, 낙랑군과 관련된 유물의 수집과 그 보존은 평양부립박물관 설립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총독부가 설치한 각 지방 박물관은 각 지역에서 수집된 유물을 보존하는 동시에 그 지역 역사의 강조와 함께 일본인이 가진 인식을 증명하려는 절차였다. 실증적인 자료들이 박물관 안에 전시된 것이다. 전시는 곧 그 유물이 간직하고 있는 역사가 사실임을 입증하는 것이었고, 이는 그 역사를 고착시키는 역할을 한다. 일제의 낙랑군 역사 인식을 증명하는 곳이 바로 평양부립 박물관이었던 셈이다.

<참고문헌>

『博物館研究』

『朝鮮』

『조선일보』

關野貞, 1917. 「樂浪時代の遺蹟」 『朝鮮彙報』(朝鮮總督府) 1.

關野貞, 1940. 『朝鮮美術史』(朝鮮史學會) 1.

國立中央博物館, 1996. 『國立中央博物館 保管 古文書 目錄』.

藤田亮策, 1931. 「朝鮮に於ける古蹟の調査及び保存の沿革」 『朝鮮』(朝鮮總督府) 12.

藤田亮策, 1951. 「朝鮮古文化財の保存」 『朝鮮學報』(朝鮮學會)5.

藤田亮策・梅原末治, 1938. 『昭和十二年度古蹟調査報告』(朝鮮古蹟研究會).

목수현, 2000. 『일제하 박물관의 형성과 그 의미』(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小泉顯夫, 1933. 「朝鮮博物館見學旅日記」 『ドルメン』(岡書院) 4.

有光教一, 1984. 「私の朝鮮考古學」 『三千里』 38.

李基白, 1999. 『韓國史新論』(서울:一潮閣).

전경수, 1998. 「한국 박물관의 식민주의적 경험과 민족주의적 실천 및 세계주의적 전망」
『한국인류학의 성과와 전망』(서울:집문당).

朝鮮總督府, 1916. 『朝鮮彙報』(朝鮮總督府) 6.

朝鮮總督府, 1918. 『朝鮮彙報』(朝鮮總督府) 11.

朝鮮總督府, 1922. 『大正五年度古蹟調査報告書』(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 1932. 『平壤府』(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博物館, 1943. 『博物館陳列品圖鑑』(朝鮮總督府) 17.

淺川伯教, 1936. 「工藝の内容と我ぶ國工藝の過去に就て」 『朝鮮』(朝鮮總督府) 5.

崔錫榮, 1997. 『일제의동화 이데올로기의 창출』(書景文化社)

崔錫榮, 2001. 『한국 근대의 박람회·박물관』(서경문화사).

黑板勝美, 1921. 「朝鮮の歴史的觀察」 『朝鮮』(朝鮮總督府) 8.

Japanese perception of Nakranggun and the Establishment of Pyongyang Governor General Museum in Japanese colonization

Kook, Sung-ha

The Japanese colonialist studying the history of Korea thought that after Gochosun, Nakrang became the center of the four ruling districts of Han. This perception was based on the existence of Nakranggun near Pyongyang. This perception was extended by the excavation and research. This perception was cemented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Pyongyang Governor-General Museums.

The following questions arise from this topic.

First, What viewpoint did the Japanese have in regard to the Nangranggun? Second, what procedure did they follow to extend and that historical perspective? Third, what kind of place was the Pyongyang Governor General Museum.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

First, the Chosun Governor General believed that Nangranggun did exist. The Nangrangguns ruling on Chosun was crucial to setting up the cultural base of Korea and its development from tribes to a country.

Second, the perception of Nangranggun was verified by field research of the Antique Search and Conservation Project. With close ties to the Chosun Governor General, the project was led by the Antique Research Committee and the Chosun Antique Research Group. The excavated relics were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Nangranggun and this extended their perception of Nangrnaggun.

Third, the acquisition and preservation of the Nangranggun related relics became the sources of the establishment of Pyongyang Governor General Museum. The data used to prove that Chosun was the colony of Han was displayed in this museum. This exhibition demonstrated that this version of history was real and thus solidified that version. The Pyongyang Governor General Museum was the place to prove the perception of Japanese-made Nangranggun.

[key word] Nakranggun, Pyongyang Museum, The Antique Search and Conservation Project, The Society of Antique Conservation, Japanese colonization